

4 뉴스

걷기 힘든 ‘울퉁불퉁’ 교내 도로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열악한 도로 사정에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 A 씨의 말을 빌리면 ‘보행이 힘든 힐을 신은 날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도로 상태다.

아스팔트 곳곳이 파여 있어 비가 오면 불편은 가중된다. 학생 B 씨는 “물웅덩이로 신발이 젖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비가 오는 날은 물이 고여 있지 않은 길을 찾아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녀야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고경범(스페인 어학 2020) 씨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데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며 특히 “킥보드 바퀴를 통해 전해지는 충격이 불쾌한 것은 물론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워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불편을 겪은 도로의 위치는 주로 사색의 광장을 따라 학생회관으로 이어지는 길과 국제경영대학에서 선승관까지의 오르막 그리고 정문에서 외국어



사색의 광장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사진=장혜림 기자)

대학까지의 도로였다. 현재 이 도로는 차량 하중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움푹 들어가 생긴 패임과 콘크리트 갈라짐으로 눈에 띄게 훼손된 상태다. 총무관리처 관리팀 측은 “교내 도로에 대형 차량 통행이 빈번하다”며 “버스 자체의 무게가 대략 12톤으로 일반적인 승용차(2톤)에 비해 6배의 하중이 걸린다”고 그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특히 지난 겨울 잦았던 폭설과 당시 통행을 위해 뿌려진 염화칼슘으로 인해 노면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는 ‘교내 도로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매년 보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한 구간은 체육대학

진출구부터 지하주차장 진입구까지다. 관리팀은 “2016년부터 매년 단계별로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도로 파손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내 도로는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훼손된 도로는 이 ‘단계별 도로포장’의 순번이 오기까지 임시로 포장재가 메워진다. 그러나 국제캠 내 차고지를 사용하는 5100번 버스 운전기사 김태식 씨에 따르면 임시 조치된 도로는 비가 오면 쉽게 다시 손상된다. 김 씨는 “승용차의 경우 버스보다 체감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도로 파손 시(임시 조치가 아닌) 빠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팀은 “임시 조치는 보수공사와 같이 아스팔트를 사용해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임시 보수인 만큼 3개월도 많이 버티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러 구역의 도로 보수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학교의 예산 문제와 더불어 교내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 보수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이라며 “현재 계획돼 있는 보수 공사는 잦은 폭설로 인한 아스팔트 수요의 증가로 공장 물량이 부족해 조금 미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1면 ‘경희대 우승’에서 이어짐

동일 대학의 두 조가 함께 결승전에 오르는 일은 전국동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단체 부문 역사상 최초이다. 조 감독은 “감독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놀라웠다”며 “선수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결승전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훈련을 함께한 같은 학교 소속 선수들을 결승전에서 마주한 소감을 묻자 A조 박성우(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는 “같은 학교라고 생각 안 하고 배드민턴 선수로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B조 최대일(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 또한 “A조와 B조 모두 힘든 경기 잘 이겨내고 결승전에서 만나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했다”며 “같은 학교지만 그래도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박 선수는 “시즌 첫 대회라 긴장도 많이 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주장으로서 선수들이 잘 경기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승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한성 감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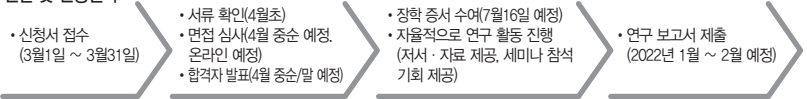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2021년 장학생 모집 공고

인류의 평화와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와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을 장려하여,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배우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별칭: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개요

- 1. 주관 단체 :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 2. 사업명 : 작은 장학회 사업(제1기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 육성 사업)
- 3. 선발인원 : 2명 내외
- 4. 장학금 : 1,000,000원(개인별)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5. 기타 혜택 :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저서·자료 제공 / 연구회가 주관하는 관련 세미나·특강 참여 기회 제공 / 학습·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기수별 펠로우 활동 참여 기회,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 제공 / 우수 보고서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책에 게재할 수 있음
- 6. 선발 및 진행절차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장학금 신청

- 1.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3월 31일(수)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하단 내용 참조)를 이메일로 접수
나. 접수주소 : cipeace2050@gmail.com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 마감일(3월 31일 24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됨. / ※ 오프라인 서류는 받지 않음. 방문 접수도 없음.
- 2. 신청자격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재(전)문대 포함, 휴학생 및 입학 예정자 포함.
나. 인류의 평화나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나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 경험에 있는 자(1가지 이상의 활동 경험).

- ※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활동, 인권보호 활동, 교육·복지 봉사활동, 문화보급 활동, 이타적인 경제·산업활동,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한 활동 등
- 다. 사약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학습할 의욕이 있는 자
- ※ 신청 시점에서 관련된 연구 실적이나 지식의 유무는 심사와 무관함. 의욕을 중심으로 심사됨.

3. 신청서류

- 가. 장학금 신청서 (한글 파일로 송부함)
- 나. 사약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PDF 파일로 송부함)
※ 확인·사약식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사인을 하고, 스캔한 파일을 송부함.
- 다. 활동 실적 증빙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 예: 활동인증서, 경력증명서, 공식 보고서, 보도자료, 사진 자료 등
- ※ 제출이 필요한 증명서에 관해서 신청서를 참조로 연구회가 합격자에게 통보함.
- 라. 대학·대학원 재적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등)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제출된 서류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합격 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장학생 의무사항

- 1. 장학 증서 수여식 참석 : 2021년 7월 16일(예정)
- 2. 연구 보고서 제출 : 2022년 1월(예정)
※ 분량과 형식: 한글 파일 기본 형식으로, A4 용지 10~20페이지 내외를 원칙으로 함.
※ 내용: 다음 유형 중 합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합격 후 결정).
① 독후감형: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저서를 최소 1권씩 읽독 후 독후감 작성.
② 학술논문형: 조영식 또는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주제로 하거나 이를 활용한 학술논문.
③ 기타형: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기관이나 학교·수업 등에 제출한 기존 리포트나 논문을 중복·수정 제출할 수 없음. / ※ 우수 보고서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책에 게재할 수 있음.
- 3. 연구 발표회 참석: 2022년 1월~2월(예정) ※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는 추후 결정됨. / ※ 연구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특강, 교류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권장함.

신청문의 ·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 이메일 : cipeace2050@gmail.com / 전화: 010-6244-3973